

2026년 7월, 출범 확정 제물포구·영종구 서구·검단구	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<p style="color: red;">이제는 인천입니다</p> <h2 style="margin: 0;">2025 APEC INCHEON</h2>	
배포일자		2024년 5월 3일(금) 총 2매			
담당 부서	위생정책과	담 당 자	• 식품지도담당 • 담당자	정혜원 ☎440-2771 김민애 ☎440-2774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배달앱 등록돼 있는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

- 연말까지 16,162개소 대상... 소비(유통)기한 준수, 조리시설 및 개인 위생 준수 등 점검 -

인천광역시는 지속적인 배달음식의 수요가 증가에 따라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배달음식점에 대해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위생점검은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온라인 배달앱에 등록돼 있는 인천시 소재 배달음식점 16,16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점검 한다.

주요 점검 사항은 ▲소비(유통)기한 준수 여부 ▲비위생적 식품 취급 여부 ▲보관기준 준수 여부 ▲조리시설 및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▲개인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.

또한, 객장 영업을 하지 않는 배달전문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취약사항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도·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, 노로바이러스 및 식중독 예방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.

이번 점검 결과,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계도 하고, 중대한 「식품위생법」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.

아울러, 특정 시기별로 소비가 증가하는 다소비 식품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특별점검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.

신남식 보건복지국장은 “이번 점검을 통해 배달음식의 위생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, 믿고 주문할 수 있는 배달음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<관련사진> 점검사진

